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교류협력의 첫걸음 내딛어 이철우 도지사, 우즈베크 수르한다리아주 부지사 면담... 교류협력과 상생발전 논의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②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과학으로 해양영토주권 지킨다 6년간 논문 31편, 저서 11편, 특허 및 상표등록 30건 등 연구 성과 거둬 울릉 최초 가두리양식장 운영, 울릉고 해양생산반 운영 등 지역협력사업 추진	동해안정책과	사진별첨
③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7월이 골든타임! 총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 및 진행중... 추진율 86% 경북도, 시군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안간힘	축산정책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속도낸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4건 심의... 조건부 및 원안의결 3건, 재심의 1건	도시계획과	사진별첨
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을 찾습니다 경북도, '제24회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23일부터 3일간 작품접수	건축디자인과	사진별첨
⑥ 경북도, 재정분권 시대 대비한 농촌개발사업 국비확보 전략회의 가져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도내 전 시군 머리 맞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논의	농촌개발과	사진별첨
⑦ 경북도 육성 129개 품종... 한 권의 책으로 발간! 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육성품종 해설집' 발간.. 시군, 유관기관에 배부 벼, 딸기, 고추, 복숭아, 장미 등 경북도 육성 17개 작목 129개 품종 수록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⑧ 경북도, 상주지진 발생에 따른 교량터널 긴급안전점검 나서 진원지 반경 30km내 교량터널 123개교 긴급 점검, 도민 불안감 해소 전력	도로철도과	사진별첨
★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대상 특강	대변인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 이철우 도지사, '청사 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행사' 참석 - 이철우 도지사, '경북 과학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 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권 기 일	주무관	신 상 호
		연 락 처	054-880-2725			

경북도-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교류협력의 첫걸음 내딛어
- 이철우 도지사, 우즈베크 수르한다리아주 부지사 면담... 교류협력과 상생발전 논의 -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오리포프 안바르(Oripov Anvar) 부지사 일행이 22일(월)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면담하고 두지역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리포프 부지사는 수르한다리아주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북도에서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 실크로드를 통한 양 지역 간의 유구한 교류 역사를 언급하며 교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수르한다리아주는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에 첫발을 내딛고 있으며, 이번엔 경북도도 처음 방문했다.

한편, 오리포프 부지사 일행은 앞서 지난 21일(일)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경북의 풍부한 역사유적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성공사례에 감탄하며 동행한 수행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에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부지사 일행 도 방문 계획

우즈베키스탄 투자유치 및 지자체 간 교류의 목적으로 도지사 예방 요청

□ 개 요

- 일 시 : 2019. 7. 22.(월) 오전 10:00~
* 방한 일정 - 7.19(금) ~ 7.22(월)
- 방문단 :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사절단(부지사의외 16명)
- 방문목적 : 지자체 소개 및 인사, 국제교류업무 논의

□ 주요일정

일 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7.22(월)	09:10~09:50	○ 리첼호텔 → 도청	
	10:00~10:30	○ 도지사 면담	
	10:30~11:00	○ 청사 견학	
	11:00~	○ 환 송	

□ 수르한다리아주 개황

- 위 치 : 우즈베키스탄 남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 인 구 : 246만명
*주도-테르미즈(14만명)
- 면 적 : 20,800 km²(道の 약1.1배)
- 주요산업 : 농업(목화多), 경공업, 식품산업, 광업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동해안전락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작성자	과장	정현표			
			팀장	권병석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053-880-7614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과학으로 해양영토주권 지킨다

- 6년간 논문 31편, 저서 11편, 특허 및 상표등록 30건 등 연구 성과 거둬 -
- 울릉 최초 기둥리양식장 운영, 울릉고 해양생산반 운영 등 지역협력사업 추진 -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지난 2014년 1월, 울릉도 북면 현포리에 문을 연지 어느덧 6년째를 맞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이하 연구기지)는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경북도의 독도수호종합대책 차원으로 설립돼 201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연구기지는 현재 박사급 연구원(4명)을 포함해 연구인력 8명과 행정인력 8명 등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울릉군 출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기지는 ▲독도 정밀 모니터링 수행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보전 활동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연구 ▲해양영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해양수산부가 연구기지를 독도 특수목적 입도객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학술연구목적 등의 독도 입도객 지원, 국내 독도 현장연구의 조정과 관리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연구기지는 지금까지 국내외 우수논문 31편(독도 해역의 해양혼합 특성과 독도 성계 행동 특성 등), 저서 11편(하늘에서 본 울릉도·독도의 해양영토 등), 특허 및 상표등록 30건(미소생물 행동 및 호흡생리활성 특정 용기 등)의 연구 성과를 올렸으며 한국해양재단 등과 해양영토교육 특강 170회, 학술행사 개최 32회 등 활발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조난, 화재 등 각종 사고시 무인 드론 지원, 울릉도 최초의 표층 가두리 양식장과 정치성 구획어업 시험어장 운영, 울릉 학생 대상 진로 체험교육, 해양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릉고 해양생산반 실습프로그램 운영, 울릉도 청년서포터즈 결성 등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과 인재 양성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위원,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 울릉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위원, 울릉도 어촌뉴딜300 자문위원, 울릉도문화유산지킴이 대표 등 폭넓은 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임장근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개척자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해왔다”면서 “독도 현장 연구의 획기적 활성화와 울릉도가 잘 살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면모를 다지고 울릉도·독도해양연구 활동의 획기적 개선과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양관측 및 해양 생물 전문인력 보강과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 건조, 울릉도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경북도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독도 전용조사선 건조를 위한 설계비와 울릉도 해양 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설계비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임해연구 기지로서의 역할과 해양영토교육 활동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연구의 중추 역할을 해온 연구기지의 노력에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해양영토주권의 전초기지인 만큼 독도주변 해양 연구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자	과장	이희주			
			팀장	김두영	주무관	김정은	
		연락처	054-880-3413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7월이 골든타임!

- 총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 및 진행중... 추진율 86% -
- 경북도, 시군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안간힘 -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7.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젓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18.9.24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19.9.27)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건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 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축산정책과, 김정은, 3413】

◆ (현황) '19.9.27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

- **추진율 86.0%**(완료 33.2% + 인허가 진행중 52.8%), **측량 9.5%**, **미진행 4.5%**

□ 적법화 진행상황 (2019. 7월 12일 기준)

구분	이행기간 부여농가	완 료	진 행 중				측 량	미진행	
			설계도 면작성	이행강제 금납부	인허가 접수	소 계		관망	폐업 예정
경북	7,273호	2,416	2,634	548	657	3,839	689	199	130
	비율	33.2	36.3	7.5	9.0	52.8	9.5	2.7	1.8
전국 (7.12)	31,816	10,391	11,823	1,694	3,277	16,794	2,494	1,085	1,052
	비율	32.7	37.2	5.3	10.3	52.8	7.8	3.4	3.3

※ 무허가 적법화 진행률 : **추진율 86.0%**(완료 33.2% + 진행중 52.8%), 전국 85.5%(E) / 대비 0.5%↑
 ⇒ 적법화 진행율(%) : 포항(68.2), 경주(84.9), 김천(84.9), 안동(81.1), 구미(77.7), 영주(85.0), 영천(84.1), 상주(82.8), 문경(94.0), 경산(91.4), 군위(92.0), 의성(88.0), 청송(100), 영양(91.7), 영덕(92.3), 청도(87.2), 고령(99.0), 성주(85.0), 칠곡(91.2), 예천(100), 봉화(64.9), 울진(100), 울릉(미해당)

□ 추진사항

- 진행률 부진 시·군에서는 9. 27일까지 적법화율 100%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지역협의체 운영, 부진 농가 현장 지원 행정 등) 추진
- 시·군 지역협의체 단장(책임자) 직책 격상 : 국·과장 → 부단체장
-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및 건축사회, 축협 참여
- **측량 및 미진행 농가 관리카드 작성 철저** 및 현장 활용 강화
- '19. 9. 27일 이후 행정처분(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 역점 추진
- '19. 9. 27일까지 적법화 완료하도록 농가 홍보 강화(공문, 방문, 전화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 자	과 장	김 준 호			
			팀 장	권중기	주무관	조훈석	
		연 락 처	054-880-3918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속도낸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4건 심의... 조건부 및 원안결 3건, 재심의 1건 -

경상북도는 지난 19일(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4건을 심의해 3건은 조건부 및 원안결, 1건은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은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경북도 농업기술원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화달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5개 시군의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제안서를 신청 받아 2017. 6월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상주시로 최종 결정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18. 9월)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실시설계 후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세부조성은 968천㎡ 부지에 지원·연구·교육시설, 시험포장 및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북도는 최첨단 연구 장비를 확보해 경북지역의 농업·농촌 연구거점으로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영덕 군관리계획은 영덕읍 남산리 일원에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결되었다.

산지유통센터는 영세한 농산물 판매를 소비자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상품으로 가공·유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영덕군에서는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로컬푸드판매장, 편익시설들을 조성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영덕군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영양 군관리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에서 당초 용도지역으로 존치하는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부로 가결했으며, 고령 군관리계획은 낙후된 우곡면 일대에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우곡교문화공원 부지를 확장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시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들 이용 수요에 맞게 재검토 하도록 의결 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에 심의한 도 농업기술원은 경북도 농업연구기술의 핵심기관으로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면서

“도시계획시설은 도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수요와 기능에 맞는 시설을 지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성 자	과 장	강 성 식			
			팀 장	권동만	주무관	남동일	
		연 락 처	054-880-4027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을 찾습니다

- 경북도, '제24회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23일부터 3일간 작품접수 -

경상북도는 우수한 옥외광고 디자인 창작 작품을 발굴·보급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제24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광고물 분야(성인부, 대학생부, 초등생부)와 기설치 광고물 분야(성인부)로 나눠 진행되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작품을 접수받는다.

응모자격은 접수일 현재 경북 도내에 거주하는 성인 및 도내 소재한 초등학교, 대학교(원) 소속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하고, 수상작품은 '2019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 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시상내역 : 31점(도지사상 15, 교육감상 2, 경주교육장상 10, 협회장상 4)

또한 우수작품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최신 광고물제작 장비와 신기술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054-531-0533),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7)로 문의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공모전을 통해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겨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공모전 포스터)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농촌개발과				
		작성자	과장	박동엽			
			팀장	염태용	주무관	박기표	
연락처	054-880-3397						

경북도, 재정분권 시대 대비한 농촌개발사업 국비확보 전략회의 가져

-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도내 전 시군 머리 맞대 -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논의 -

경상북도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의해 공모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비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목)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비사업 지방이양 최종 결정에 의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256억원 중 마을만들기 사업(4,387억원 규모)이 지방에 이양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경북도의 첫 국비확보 대책회의로 재정분권 시대로 변화된 흐름에 한발 앞서 국비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869억원 규모)이 2020년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육성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시군 담당과장의 빠른 업무이해로 보다 적극적인 응모를 독려하는 한편, 특히 농식품부에서 단계적 추진을 계획 중인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별 자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협약제도 : 농촌지역의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당사자로 협약을 맺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 「아시아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을 도에서 공모할 예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규 사업 발굴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관리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군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석한 시군의 담당과장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 축소에 대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개최한 국비확보 대책마련 전략회의는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 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재정분권시대라는 변화를 역발상의 기회로 삼아 경북의 농촌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로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성자	과장	신용습			
			팀장	고진용	담당자	김대홍	
연락처	053-320-0461						

경북도 육성 129개 품종... 한 권의 책으로 발간!

- 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육성품종 해설집' 발간.. 시군, 유관기관에 배부 -
- 벼, 딸기, 고추, 복숭아, 장미 등 경북도 육성 17개 작목 129개 품종 수록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된 17개 작목 129개 품종을 수록한 '경상북도 육성품종 해설집'을 발간해 농업인과 관련 농업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집에는 지금까지 경북도에서 육성한 129개 품종의 특성과 육성 경과, 재배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 책자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해 육성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1999년 국립종자원에 고추품종 '영고 1호' 등 3개 품종 등록을 시작으로 2018년 딸기 '빅스타' 등 5개 품종의 품종보호권 등록까지 20여 년간 총 129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

주요 품종을 살펴보면 중만생 벼 '다솜쌀', 비타민 에이(A) 함유 기능성 찰옥수수 '황찰옥' 등 식량작물 5개 품종, 과육이 붉은 중생종 사과 '진홍', 과립이 큰 시설포도 '빅데라', 국내 최초 교배육종 조생 황도 '미황' 등 과수 14개 품종, '싼타' 등 딸기 7개 품종, 장미·국화 등 화훼 87개 품종 등을 육성했다.

신품종 개발은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업 적응, 로열티 경감 및 수출용 품종 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품종 개발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25개 작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임해 온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및 농업인 여러분 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해설서가 농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2(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작성자	과장	김영주		
			팀장	손병순	주무관	정의현
연락처	054-880-3987					

경북도 상주지진 발생에 따른 교량터널 긴급안전점검 나서

- 진원지 반경 30km내 교량터널 123개교 긴급 점검... 도민 불안감 해소 전력 -

경상북도는 7.21일 올해 내륙 최대 규모의 진도3.9 지진이 상주시 북북서쪽 11km에서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일) 진원지 인근 노후교량 및 터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진발생 후 즉시 진원지인 상주시를 중심으로 진원지 반경 30km이내 상주, 문경, 예천 등 3개 시군의 도로 주요구조물 교량, 터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북도는 진원지 반경 30km이내 교량 123개교 중 노후교량 9곳과 진원지 인근 5개 터널(쌍용,사현,지동,갈령,우산재)의 구조물 균열여부, 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했으며, 이번 긴급 점검결과 지진으로 인한 교량 및 터널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노후교량을 제외한 114개 교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경주·포항지진 발생을 계기로 교량내진보강 중장기계획(‘17~‘21년)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전체 936개교 중 내진 성능평가 대상 240개교의 약 35%인 84개교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내진성능평가가 마무리 되면 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긴급점검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교량·터널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태풍 ‘다나스’ 직후 약해진 지반 상태에서 지진발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도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대상 특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2일(월) 도청 동탁관에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을 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3일(화) 오전 7시 2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조병인 자연의원 원장을 초청해 「중년건강을 위한 자연치유법 -몸치유, 마음치유」 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3일(화)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청사 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행사’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3일(화)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 구장에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행사’에 참석해 도청어린이집 원생들과 즐거운 물놀이 체험을 한다.
- 이철우 도지사, ‘경북 과학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3일(화) 오후 2시10분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 과학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